

주말 공부시간 격차 뚜렷... 상위권 학생 5.3배 더 공부했다

진학사, 고교생 3522명 대상 조사
주말 6시간 이상 공부 비율 결과
1등급 46.8%, 5등급 이하 8.8%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DB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 격차가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에 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약 3배였던 등급 간 공부 시간 격차는 주말 5.3배까지 확대됐고, 실제 성적이 오른 학생들은 유튜브와 SNS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며 학습량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진학사가 전국 고등학생 3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대별 평일과 주말 순수 공부 시간 격차는 주말에 더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기준 하루 4시간 이상 스스로 공부하는 비율은 1등급이 55.0%로 집계됐다. 5등급 이하는 18.9%로, 약 2.9배 차이를 보였다. 주말에는 격차가 더 컸

다. 주말에 6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은 1등급이 46.8%였지만 5등급 이하는 8.8%에 그쳐 5.3배 차이를 나타냈다.

주말 장시간 학습 비율도 상위권에서 높았다. 주말 8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

율은 1등급이 26.8%로 조사돼 5등급 이하 3.8%보다 7배 많았다. 학교와 학원 일정으로 가용 시간이 비슷한 평일보다, 자기 주도 시간이 주어지는 주말에 등급 간 학습량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난 셈이다.

성적이 실제 오른 학생들의 응답에서도 학습량 확보가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진학사는 고1 대비 고3 내신 성적이 상승한 2025년 고3 학생 1061명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88.2%가 성적 상승 전보다 순공 시간을 늘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3시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고 ▲1~2시간 증가 26.9% ▲3시간 이상 증가 24.6% 순이었다.

학습 시간 확보를 위해 가장 많이 포기한 것은 게임·SNS·유튜브 등 여가 시간이었다. 해당 응답 비율은 4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 늦잠·늦은 취침 22.7% ▲ 친구들과의 약속 12.0%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부 방법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생활 관리가 함께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평일에는 학교와 학원 스케줄로 인해

학생 간 가용 시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온전한 자기 주도 시간이 주어지는 주말에 등급 간 실력이 결정된다"며 "평일 3배였던 격차가 주말에 5.3배로 커진다는 것은 하위권 학생들이 주말을 공백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성적 상승자들이 가장 먼저 유튜브와 SNS를 끊어낸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성적 역전을 꿈꾼다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과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주말 공부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두 차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조사는 지난 2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고등학생 35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두 번째 조사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고1 대비 고3 내신 성적이 상승한 2025년 고3 학생 106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 도입 '수원 통닭거리' 중심 韓 미식관광 추진

선제적 적발 한계... 적극 신고가 핵심
모바일 접근성 높여 사각지대 최소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기존 PC 기반 신고 체계를 모바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연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신고와 적발률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신고 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PC 기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시공간 제약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있었다.

불법찬조금은 교육지원 활동을 명목으로 학교 정식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조성하는 모든 금품을 뜻한다.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사이에서 금원을 할당해 모으거나, 명절 등에 감사와 격려를 이유로 운동부 코치나 감독 등에게 금품이나 기프트콘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이 주로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조성되는 만큼 선제적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근절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

했다. 모바일 신고는 안내문에 첨부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접속한 뒤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 메신저 캡처, 녹취 파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접근성이 뛰어난 모바일 신고센터 운영으로 비위 행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발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직 내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수원시, 'K-미식벨트' 공모 선정

수원특례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케이(K)-미식벨트 조성 사업(치킨벨트)' 공모에 선정되며 수원 통닭거리를 중심으로 한 미식관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케이(K)-미식벨트 사업은 지역 대표 식재료와 미식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고도화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공모 사업으로, 올해 전국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수원시는 치킨 분야에 선정되며 국비 50%를 포함한 총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수원시는 수원문화재단, 민간 여행사와 협력해 '치킨과 함께하는 수원 K-헤리티지 미식여행'을 추진한다. 행궁동 통닭거리와 수원화성, 화성행궁, 행리단길 등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해 먹거리, 체험, 문화가 결합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통닭거리 자체를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프랜차이즈 중심이 아닌 지역 상권의 브랜드화를 도모하고, 치킨 만들기 체험과 미식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통닭거리 원데이 클래스 ▲교촌 1991스쿨 연계 관광 코스 ▲1박 2일 체류형 'K-치킨 그랜드투어' 등이 마련돼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시는 수원화성문화제, 수원 화성 미디어아트 등 기존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와 맞물려 K-치킨 벨트를 대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통닭거리라는 고유한 자원을 세계적인 미식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간과 협력해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수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경기도, 정비소 150여곳에 친환경차 장비 지원

올해 총 사업비 3억 투입

경기도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정비를 집 근처 정비소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비가 없어 친환경자동차 정비 못하는 자동차정비소를 대상으로 장비 구입비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최근 경기도 내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2022년에서 2025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으나, 친환경 정비 가능한 곳은 전체 정비소의 4.34% 수준인 1568개소 수준으로, 대부분 제작사 직영 서비스 센터에 쏠려 있어 긴 대기 시간과 부족한 접근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도는 올해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전기 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뉴시스

해 150여 개 정비 사업장의 장비 현대화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운영 중인 종합·소형·전문정비업체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교육 이수자나 자격 취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선정된 업체는 장비 구매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20만원까지 지

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원 품목을 2025년 5개에서 올해 6개로 확대했다. 지원 장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고장 진단기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에 이어 올해는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신냉매(R-1234yf) 대응을 위한 '에어컨 냉매 충전 회수기'가 추가됐다.

신청 희망 사업자는 5월 8일까지 경기도 택시교통과 또는 도내 5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6 | 해질 / 19:02

4월 9일 (木)
음력 : 2월 22일

수도권 날씨
6 ~ 1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3/10
- 동두천 4/11
- 가평 3/10
- 파주 3/11
- 서울 6/11
- 양평 4/12
- 용인 6/12
- 수원 6/12
- 인천 6/12
- 평택 4/13
- 백령도 7/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정체 해소 지원...큰 수익 창출될 것" /사진 뉴시스

▲"美 달궐도 우주정거장 계획, 日에 사전통보 없이 중단 발표"

▲대만, 덴마크에도 '중국' 표기 반발...주대만 외교관 특권 취소

▲中 "美당국 심문받고 중국인 연구원 극단 선택"...진상규명 촉구

▲日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 日EEZ 밖 낙하한 듯"

▲인구 세계4위 인니서 영아매매 조직 적발...'싱가포르 등에 팔아'